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 고교 야구부 전달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고교 야구부 지원 사업 모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2일 고창 스포츠타운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모금된 기부금은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구 영선고) 야구부의 낡은 훈련 장비 교체, 선수단 훈련 환경 개선, 동계 훈련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구 영선고) 야구부는 2015년 최초로 창단했지만 승인받지 못하고 2019년에 해체되었던 것을 2023년에 재창단했다.

이후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고창군은 4년만에 재창단한 지역 고교야구부를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벼 재배농가 톤백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정읍시가 벼농사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확기에 필요한 수매자재(톤백)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5월 2일까지 '2025년 벼 수매자재(톤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수확 후 양곡의 보관·운반에 사용되는 톤백(800kg/1000kg)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만1050장의 톤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00㎡ 이상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중소규모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2ha 이하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물량에 여유가 생기면 5ha 이하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당 지원 가능한 최대 수량은 20매다.

/정읍=김대환 기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정읍시-한국관광공사, 내달 22일까지 공모

정읍시가 관광두레 신규 지역 선정 이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분야 주민사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관광체험과 식음, 여행, 숙박, 기념품 등 관광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3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정읍시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대 5년간 최대 1억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전문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3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사업체는 정읍시 관광두레 PD와 협의 후, 5월 22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home)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지역 주민사업체들이 이번 관광두레 공모에 적극 참여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1월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관광두레 신규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주민사업체 공모는 그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수성당 유채꽃밭, 바다·하늘·산

부안 변산면, 노란 유채꽃 만개… 관광객들에 황홀경 선사

부안군 변산면 수성당에 봄의 물결 따라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탁 트인 들녘을 배경으로 펼쳐진 수성당 유채꽃밭은 바다, 하늘, 산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황홀경을 선사해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수성당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숨은 명소로 고즈넉한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로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아 왔다.

여기에 유채꽃이 더해지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수성당 유채꽃 개화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돼 오는 5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들은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넓은 꽃밭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변산면 관계자는 "올해도 수성당 유채꽃이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피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8회 하전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5월 3일 개막

고창군,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 갯벌 체험·바지락 무료나눔 등 다양한 콘텐츠 마련

고창군 하전 바지락 축제(오감체험 페스티벌)가 오는 5월 3~5일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하전어촌계가 주최하며, 작년에 비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조개캐기, 갯벌 체험과 바지락 무료나눔, 풍천장어 잡기 등 기존 인기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먼저, 요리 전문가와 조리과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바지락 요리 런칭쇼'가 새롭게 선보인다.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바지락 요리가 탄생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또한 MZ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바지락 숏폼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바지락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숏츠 영상을 제작해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제작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고창바지락 공식 캐릭터 '고바락'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다. 아크릴키링, 티셔츠, 래디백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축제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기간 중 드레스코드를 '고바락 티셔츠와 청바지'로 지정해 참가자들의 일체감을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갯벌퍼레이드는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올해는 트랙터로 드라이브만 하고 끝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트랙터로 이동한 후 갯벌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권영주 하전어촌계장은 "5월은 바지락의 영양과 맛이 절정에 달하는 황금시기다"면서 "더 다채롭고 풍성해진 올해 제8회 하전 바지락축제에서 고창의 자랑인 하전바지락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며 가정의 달을 특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부안군의회,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품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제품 결함 인정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연 정책 추진 및 유해 성분 공개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흡연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봄빛 따라 걷는 길… 정읍 신태인 유채꽃 절정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 줄기를 따라 노랗게 피어난 유채꽃이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태인 만석보에서 파크골프장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이어진 유채꽃은 봄기운을 머금고 노란 꽃잎을 활짝 펼치며 동진강변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시원하게 흐르는 강줄기와 나란히 자리 잡은 유채꽃밭은 산책로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이 유채꽃밭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생태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따뜻한 날씨와 함께 꽃이 절정을 이루는 요즘,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사진 애호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유채꽃 사이로 흐르는 동진강 위 철교를 달리는 기차와 노란 꽃밭이 어우러진 풍경은 감탄을 자아낸다. 생생한 자연의 색채와 봄기운 가득한 풍경은 많은 이들의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하고 있다. 유채꽃밭 인근에는 파크골프장, 쉼터,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여유로운 봄날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시 관계자는 "올봄 유채꽃은 특히 생육 상태가 좋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선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진강변 경관 개선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정읍을 찾는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4월 소통의 날… 특강 관심 집중

정읍시가 4월 소통의 날을 통해 공직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과 현안 대응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정읍 벚꽃축제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에 대해 이학수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소성면 산불 현장에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제1회 추경예산 대응,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초청 특강에서는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김수영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선거관련 금지사항 안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두 번째 특강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방사선 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기자